

완전복음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야고보

-복음으로 여는 야고보서-

창세기 22:12-14, 야고보서 2:21-26

정윤돈 목사님

* **창22:12-14**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 **약2:21-26**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올인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현장,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 가정, 가문, 우리 교회, 나라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왔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전지전능하심이다. 믿어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이다. 은금이 풍부한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을 믿는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최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염려, 근

심, 걱정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감사하고 믿기만 해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 믿을 수 있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정탐꾼이 와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하고 그 언약을 믿었다. 소문을 듣고도 믿는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으로 영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생명을 가졌지만 건강한 신체와 지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다.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은 얻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도 이와 같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갓난 아이 같고, 장애인 같고, 중환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한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 줄 수 있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할 행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당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즉,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완전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도 복음의 절대목표는 완전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완전복음은 복음과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못해도 생각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로마서 16 장의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뒤 돌아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5 장 48 절을 함께 보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배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인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해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 디아방, 미션홈, 지교회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1. 첫 번째로는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 번째에서는 야고보서 앞부분에 나오는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째로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세상과 교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야고보서 1 장 2 절에서 4 절의 말씀을 읽겠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 장 2 절의 말씀은 내 영혼에 각인된 말씀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이다. 이 말씀은 마치 신앙의 마술시팡이 같은 기준, 수준, 표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고, 기쁜 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때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자신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 장 5 절에서 7 절의 말씀을 보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중요하다. 공부도, 운동도, 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불가능도 절대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다.

(3) 세 번째로 당시 초대교회들 안에는 부자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을 차별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4) 네 번째로 머리는 똑똑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독한 시기로 다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내 잘난 맛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한다면 분란만 일어난다. 그래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행과 온유함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화평케 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2.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실천미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실천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씀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하겠다.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증거가 안 된다. 믿음의 영역이다. 두 번째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에는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 교회에 모든 분야의 서명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죄 용서함,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원죄, 자범죄, 사탄의 죄를 이길 수 있다. 악몽, 가위눌림, 자살, 부부문제, 이혼, 알코올, 도박문제, 무당, 마음의 공허함, 정신적 문제, 사고, 재앙, 질병, 죽음과 지옥문제로 오직 예수로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삶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 실천을 할 수 없다.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천리스트를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설명 드리겠다.

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그래서 3장 2절에서 12절에서는 긴 내용의 말씀으로 말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② 야고보서 1장 22절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③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사회적 약자)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사회복지 등)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술, 담배, 마약, 도박, 돈욕심, 사기, 등).” 진정한 경건은 약한 사람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④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복음적인 지혜이다.

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투고 싸우는 것도 사탄이 가져다주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⑥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것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점점 타락이 많아진다.

⑦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⑧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⑨ 결국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끝내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삶이 되어지는 사람, 우리는 절대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절대가능으로 되어질 줄을 믿는다.

결론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 5 단어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실천해도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알기만 해도 거듭나게 될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완전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인생에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금토일시대에 3가지 뜰과 회당운동이 일어나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절대미션과 절대목표를 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후대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